

한 국 어 판

True Peace

Vol. 42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天一國 11年
天曆 12월
2024년 양력 1월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동정

특집

HJ NEWS

현장소식

2024년,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전진하자

2023 신통일한국 읍면동 지도자 남북통일기원 창원시 구국구세기도회 천일국 시대, 축복가정의 책임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크리스마스 특별오찬

남양주대교회 남북통일기원 참사랑 축제

양창식 천주평화연합(UFP) 세계의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문

신미국, 뉴저지 전도 전략 모임



2024년,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전진하자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사랑하는 천일국 지도자, 축복가정 여러분! 2023년 다사다난했던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존경하는 천일국 지도자,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의 새로운 꿈과 목표가 뜻하신 바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하늘부모님의 축복과 참부모님의 은혜가 충만한, 참으로 놀라운 섭리적 결실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지난 (양) 5월 7일 참어머님 산수연을 맞아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신 이후 (양) 5월 9일 새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하시며, 가정연합의 새로운 출발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참어머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가정연합과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고자 세계본부와 제1비서실, 제2비서실을 마련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본부는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7가지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3가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순회를 통한 면밀한 현황 파악과 대륙별 국가별 전략 수립’ 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세계본부는 참어머님의 명을 받아 신유령을 시작으로 3개월간 5개 대륙 12개 국가를 연이어 순회하며 세계 곳곳의 섭리현장을 목도하고, 구체적이며 절실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치열하게 전략 논의를 한 결과 이전보다 훨씬 깊은 심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순회 당시 현장과 약속했던 ‘지속적인 소통과 공유’를 실천하기 위해 매월 대륙별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61개국 국가회장과 1대 1회의도 진행하며 현장을 서포트 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부모님을 중심한 하늘부모님성회의 심정문화 재정립 및 교육’에 관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중인 ‘천일국 시대 참부모신학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시대”는 천일국 시대에 맞는 말씀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천일국의 전통 확립을 위한 교육 강의안이 개발되어야 한다.”시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본질, 그리고 축복가정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심정화 교육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세계본부는 선문대학교와 선학UP대학원대학교 신학 교수진을 하나로 묶어, ‘참부모신학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참부모신학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어머님께서 ‘참부모신학 연구’의 제목을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로 정해 주시어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양) 12월 15일에는 참부모신학 연구의 최종목표인 “천일경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에 대한 추가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본부는 참어머님께서 최근에 주신 말씀을 받들어 섭리완성시대를 맞아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재로, 더욱 빈틈없이 짝 차게 만들어, 알찬 천일국 교재가 되도록 완벽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시가 급하다’시는 참어머님의 깊은 사정과 심정을 헤아린 세계본부를 비롯한 비서 1실, 비서 2실, 신한국 협회와 신학 교수진들은 하나 된 가운데 모든 내용을 심도있게 의논하고 소통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세대 양성과 인재 데이터뱅크 전략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참어머님께서 “2세대 이 국가복귀 세계복귀에 앞장서야 한다.”시며 “2024년부터 문신출·문신흥 생도를 포함한 60여 명의 선문 UPA 생도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해외 선교를 나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본부는 참어머님 말씀을 받들어 전 세계 대륙과 연대하여 ‘신탄진’ 2세권 공식 노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UPA 생도의 해외선교 및 전 세계 대륙의 2세 청년이 함께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일국 지도자, 축복가정 여러분! 세계본부는 앞으로도 실체적 교회성장과 국가복귀 비전 성취를 위해 각 대륙과 서로 소통하며 하나되어, 중단 없이 전진하시는 어머님을 따라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3년 한 해 모두가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4년은 참어머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의 축복가정들이 다짐과 결의하여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큰 희망을 올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7

CONTENTS



권두언

- 02 2024년,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전진하자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특집

- 10 남양주대교회
남북통일기원 참사랑 축제
14 2023 신통일한국 읍면동 지도자
남북통일기원 창원시 구국구세기도회

세계회장 특별보고

- 18 6개월 간의 성장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HJ NEWS

- 22 양창식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문
23 양창식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
쿤 사오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 회동
24 UPF 아시아태평양권역,
스리랑카 국회와 국회의원 지도자회의
공동주최
26 천주평화사관학교
신탁건(神TOPGUN) 선교활동
30 제5회 남북통일 기원!
천운상속 천심수련

참부모님 말씀

- 04 메시아의 역할과 사명
천성경 제1편 제4장 1절
06 천일국 시대, 축복가정의 책임
2023 신통일한국 읍면동 지도자
남북통일기원 창원시 구국구세기도회

참부모님 동정

- 08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크리스마스 특별오찬

현장소식

- 신미국
33 뉴저지 전도 전략 모임
신아시아태평양
34 '위하는 삶' 시상식 및
신규 평화대사 위촉식
신남미
35 브라질 종교지도자 평화대사 위촉식
36 새식구 1000명 승리 특별예배
신중미
37 도미니카공화국 축복결혼식

효정증거

- 38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시간
에바





메시아의 역할과 사명

천성경 제1편 제4장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신 것은, 가나안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승리적인 민족 기반을 완결지어 하나의 주권을 세운 다음 장차 보낼 메시아를 맞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자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모시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사탄세계를 쳐서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종결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구세주가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세

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줄 알았 지, 민족적인 승리와 국가적인 승리의 터전 위에 세계적인 승리의 터전을 닦아 복귀의 역사를 종결지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개인이 완성되지 못하면 새로이 자각 된 가정이 형성될 수 없고, 새로운 가정 이 나오지 않고는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국가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통일교회는 개인의 완성을 결의하 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복귀 완성을 그렇게도 고대해 나오셨습니다.

남성이면 남성 한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 서 지금까지 6천년 역사가 걸렸다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복귀섭리의 전반적인 목적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 의 남성 완성에 두고 그것을 표준 해 나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완성한 남성을 중심삼고 하나의 여성을 세워 하나의 가정 완성의 표본을 만들고자 하신 것인 데, 그것이 메시아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사상을 중심삼고 신랑 신부를 세움으로써 복귀섭리를 귀결지으려 하 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생활의 기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워

놓은 생활관이나 그분이 지향하는 이념은 일체 후대의 만민이 본받아야 할 표본입니다.

하나님 복귀섭리의 또 하나의 공식은 메시아를 보내시기에 앞서 중심종교와 중심국가를 세워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를 세우시고 그 준비된 터 위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어 모든 인간이 점차 그와 하나되게 하심으로써 선의 판도를 넓혀 가며 세계복귀, 즉 천국이념을 구현하려고 하셨습니다. 4천년이나 걸려 준비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예수님을 맞아 일체가 됨으로써 희생적으로 하나의 뜻을 받들었더라면, 그 당시에 바로 아랍권과 아시아를 통합하고 서양을 연결하여 전 세계 땅끝까지 급진적으로 뜻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주권으로 통일된 지상천국을 건설하였을 것입니다.

참사랑과 참생명의 씨를 가진 아담을 잃은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조건이 없는 새로운 씨를 가진 아들을 찾아 세워야 합니

다. 창조 때 아담을 먼저 지었듯이 재창조섭리인 복귀섭리도 타락과 무관한 아들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근본입니다. 메시아는 사탄의 관장 하에 있는 타락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생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를 접붙여 주기 위해서 오시는 참사람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에게 두었지만 후아담으로 와서 아담이 저질러 놓은 것을 청산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만으로 역사할 초인을 메시아로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세주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대표자입니다. 인간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한을 가진 절망자입니다. 이것을 해원성사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구세주입니다. 본연의 사랑을 구해 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밥 못 먹는 사람 밥 먹여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를 해방하는 길은 참다운 사랑을 하는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남을 수 있을 때 그 남자는 구

속이 없습니다. 해방입니다. 본질적 중심인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랑을 찾아 투입하면서 잊어버리는 입장에 있는 서글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본래 계획하신 참사랑과 평화의 이상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원상회복의 섭리, 즉 복귀섭리입니다. 이와 같은 복귀섭리를 위해서 종교들을 세우고 선의 판도를 넓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 복귀섭리를 완결짓는 총책임을 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참부모로 오셔서 근본부터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은 참부모의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인류를 참사랑으로 중생시켜 참된 사람, 참된 부부로 회복시켜 참부모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지상의 불신으로 인하여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였습니다. 참부모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전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 축복가정의 책임

2023 신통일한국 읍면동 지도자 남북통일기원 창원시 구국구세기도회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14일(2023.11.26) | 창원컨벤션센터

하늘 섭리로 본 기독교와 한민족 그리고 천일국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늘부모님께서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성장 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잘 성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세계 인류를 만들어 냈습니다.

인류역사는 전쟁과 갈등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종교

간의 분쟁, 사상전, 민족 간의 갈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 오면서 하나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본래 하늘부모님이 건강하게 창조해 주신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늘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책임분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수고로운 탕감복귀 구원 섭리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하늘이 대할 수 있는 혈통



을 찾기까지는 4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메시아로 보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 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다시 오마.’ 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령을 통한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져 2천 년 간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다시 오마.’ 했을까요?

본래 창조주께서는 인간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들을 통해서 창조주께서는 지상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남성 한 분으로는 그러한 섭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어머니로부터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와서 어린양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다시 오마.’ 한 예수 그리스도도, 곧 재림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노정에서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할 점은 기독교 배경을 통해 독생녀 탄생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독생녀가 탄생이 되어야만 재림메시아의 섭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은 섭리의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본질을 알아서 독생녀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2천 년간 수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을 풀고,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발동을 거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글은 신통일한국 읍면동 지도자 남북통일기원 창원시 구국구세 기도회(양 11.26,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하신 말씀을 편집 정리함.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크리스마스 특별오찬

천일국 11년 천력 11월 13일 (2023. 12. 25)

천정궁 연회실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되어 한마음 한 뜻으로 실천공행하여
반드시 하늘부모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환경권을
이 나라부터 세계로 확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1세 2세 3세를 동원하여
지상에 참부모의 현현을 교육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류의 미래, 지구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겠습니다.”



남양주대교회 남북통일기원 참사랑 축제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남양주대교회 주최 남북통일기원 참사랑 축제가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7일 (양 11.19) 남양주대교회 대성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예배에는 천일국 지도자, 남양주대교회 식구와 평화시민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양명 대교회장의 사회로 '남북통일은 우리의 숙명' 영상 시청, 준비찬양, 개회선언, 환영 및 내빈소개,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제창, 보고기도(이인보 장로), 인사말씀(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환영사(용정식 대교회장), 참부모님 입장, 경배, 케이크 커팅, 꽃다발 봉정(효동·성화 대표, 박종대 제직회장·박영숙 부인회장), 참부모님 말씀, 결의문 낭독(용정식 대교회장·하타나카 데루미 집사), 환영영상 상영(전체 식구·원로목회자), 효정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사랑 축제 예배의 의미는 첫째, 실체성령 독생녀 참어머님의 위상과 가치를 전파하기 위함이고, 둘째 용정식 대교회장을 중심한 6개월 전력투구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셋째, 전 세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참부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함이고, 넷째, 남양주대교회 식구들의 정성의 기반을 모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이날 참부모님께서 말씀 통해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눈뜰 수 없는 상황에서 바늘구멍을 찾아야 하는 심정으로 하늘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시며 “하늘부모님이 바라시는 남북통일을 위해 하늘부모님의 본체 되시는 참부모 뿌리와 하나된 원로들과 축복가정들이 든든한 몸체가 되어 수많은 가치를 만들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남양주대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축복해 주셨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오늘은 참부모님께서 ‘한국 협회를 재건하여 교회성장의 기적을 만들어 남북통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남양주대교회에 내린 하늘의 축복이 신한국 전체 교회에 확산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용정식 대교회장은 환영사에서 “2019년 출발한 남양주 효정평화봉사단 활동이 2021년도 경기도지사상, 2022년 한국자원봉사단 협회장상, 2023년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받게 됐다.”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나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닦아온 십리기반을 통해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로 반드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실현하는 ‘비전 2025’ 총력 활동 승리로 반드시 남북통일과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인 천보가정을 완수하고, 미래세대 청년학생 지도자 육성, 참사랑과 위하는 심정의 자세로 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더욱 교회를 성장시켜 지역복귀, 국가복귀의 비전을 이룰 것을 하늘 앞에 결의했다. 전체 예배는 김성태 UPF 남양주 지부장 선창의 억만세 삼창으로 마무리됐다.





참석자 대표 소감

최정창·이양숙 가정(원로목사)

참어머님의 건강하시고, 우아한 모습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 동안 용정식 대교회장과 박양명 대교회장이 서로 존경하고 화합하며 식구들과 하나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참어머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남양주대교회는 참어머님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뜻 앞에 원로목회자와 식구가 하나 되어, 서로서로 도우며 성장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참어머님을 모시고 전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참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양명 대교회장

실체성령 독생녀 참어머님께서 남양주대교회에 천운을 몰고 오신 엄청난 하늘부모님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6월 18일 6개월 총력전도활동을 출발하면서 참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3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5월 참어머님께서 용정식 대교회장을 남양주대교회로 보내주시며 저희는 9년 만에 꿈을 현실로 맞이했습니다.

참어머님을 모시고 오늘 전체가 결의했듯, 저희 모두는 천보가정 등재, 신앙전통 상속, 실체성령 독생녀 참어머님 증거를 통해 남북통일의 기반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효석 청년교회장

참어머님께서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어머님께서 남양주대교회를 찾아주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구나, “정말 참어머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남양주대교회까지 직접 발걸음을 옮겨 주신 것은 하늘의 큰 은사입니다. 남양주대교회에 찾아주셔서 환한 미소로 저희들에게 꿈같은 오늘 하루를 선물해주신 참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윤지남 박소정 가정

실체성령 독생녀 참어머님, 인류의 참어머님, 평항의 왕엄마를 온 마음과 몸으로 체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왕엄마의 사랑을 한없이 느끼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뜻을 남양주대교회가 앞장서서 남양주시, 경기도, 대한민국의 복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남북통일, 조국광복, 신종족적메시아의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하늘부모님! 천지인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이승겸 청년

어린시절에는 참부모님을 가까이서 뵈 수 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정성 들이고 실행한다면 어떻게든 꿈도 현실로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현재 진로에 관한 고민이 있지만 저는 반드시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저도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참여머님! 감사합니다.

남영희 청년

내년에 UPA 4학년 생도로서 해외선교를 가야한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과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여머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통해 참여머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저 또한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참여머님의 효정으로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머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오늘 전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참여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가영 청년

참사랑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 용정식 대교회장님께서 남양주대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서로 간의 언행을 조심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효정문화공연을 준비하면서 참여머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제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보다는 먼저 하나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모두가 하나 된 가운데 준비한 결과 효정문화공연을 통해 마침내 참여머님께 효정을 다하는 모습의 결실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여머님! 오늘의 이 영광이 영원할 수 있도록 비전 2025 승리,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해 전진 또 전진 하겠습니다.

문화식 장로

꿈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머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의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꿈은 분명 현실로 다가 올 오늘을 위해 정성과 그 기반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을 맞이하기 전까지도 가족들의 신앙 반대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꺾이지 않고, 가족들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가족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여머님! 참여머님의 '국가복귀에 일등공신으로 앞장서는 교회가 되라'는 축복의 말씀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신통일한국 읍면동 지도자 남북통일기원 창원시 구국구세기도회

광복 78주년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2023 신통일한국 읍면동 지도자 남북통일기원 창원시 구국구세기도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14일(양 11.26)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공생·공영·공의를 통한 행복한 가정! 한반도 평화 통일! 결의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천주평화연합(UPF)·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한국종교협의회·신통일한국국민연합 경남 원로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지도자와 식구, 창원시를 비롯한 마산, 동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평화시민 6,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기원의식(이기성 천심원장&종교지도자), 대회사(박영배 조직위원장), 축하, 호정찬양(경남히어로즈&효정성가대), 효정스피치(데즈가 가오루 강사, 정혜선 배우, 백지원 국악단), 남북통일기원 공연, 영상 시청, 꽃다발 봉정(정종호·사가이 지즈루 가정), 기조연설(참부모님), 화합통일피날레, 통일의 노래, 억만세 삼창(박판도 UPF 경남 회장),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늘 섭리로 본 우리의 책임>이란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는 전쟁과 갈등으로 종교 간의 분쟁, 사상전, 민족 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 낸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한국의 문제도,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도 인간 중심이 아닌 중심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와 하나 되어 백 명, 천 명을 거느리는 지도력을 발휘해 승리하기를 축원한다.”고 격려해 주셨다.

박영배 조직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전쟁과 재난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의 초석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또한 행복한 가정을 위해 창원 시민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남북통일의 운세가 열리고 통일의 그날이 찾아올 것이기에 평화통일을 이루어 지구촌 평화시대를 창원에서 활짝 열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강기운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회가 평화롭고 국가가 평화로워진다.”며, “가정의 소중함과 효와 정의 소중함의 철학이야말로 세계평화의 초석이기에 금일 구국구세 기도회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부시장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정체성 확립과 평화통일을 향한 올바른 시대정신 정립이 엄중히 필요한 시기에 이번 구국구세 기도회도 지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매우 특별하고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도 “오늘 구국구세 기도회를 통해 공생·공영·공의의 일념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평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남한의 세계 최첨단 기술에 한국의 자본이 6천조가 넘게 평가되는 북한자원과 2천만의 근면·성실한 노동력이 합해진다면, 통일 이후 10년 만에 통일된 우리나라는 문화·경제·군사력이 미국과 함께 G2가 될 것이다.”며 “참부모님께서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양측이 총과 칼을 내려놓고 포용과 사랑으로 대통일의 길을 열어야 하는 ‘모멘텀’을 VISION 2025로 선포하셨다.”고 밝혔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남북통일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늘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참부모와 하나 되어야만 남북통일의 천운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 동포를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늘부모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원의식에는 각 종교계를 대표하여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이기성 천심원장, 기독교 김성수 목사, 불교 청정스님, 유교 강용수 회장, 대종교 허귀숙 태신모, 천리교 김동학 교회장 등이 평화기원 합수식을 진행했으며 이후 이기성 천심원장이 고천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종단과 종파를 초월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전진할 것을 결의했으며, 6,000여 명의 합심기도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억만세 삼창으로 전체 일정을 성료했다.

한편, 김영선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이달곤 국회의원, 윤한홍 국회의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행사를 축하하는 영상 및 축전을 보내왔다. 



6개월 간의 성장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2023년은 우리에게 하늘부모님의 축복과 참부모님의 은혜 속에 참으로 놀라운 섭리적 결실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참어머님 산수연을 맞아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날 참어머님께서는 하늘부모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시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 천일국 백성들의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흥분되고 설레는 이 기쁨의 환희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이제는 천일국의 백성들이 하늘부모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라고 기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로소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에 안착하시는 새로운 섭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참여머님께서는 새 시대에 맞는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참여머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시며 천심원과 가정연합 이원체제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천심원은 전 세계 대륙본부에 천심원 분원을 세우고, 교회마다 특별기도실을 세워 매일 매일 하늘부모님께서 치리하시는 영적 환경권을 확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900회 넘어 1000회 특별철야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연합과 UPF 또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여 하늘부모님의 환경권을 개척하는 6개월 총력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계본부는 참여머님의 심정에 완전히 공명하여, 전 세계 모든 대륙과 국가가 반드시 하나 되어 승리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중단 없는 6개월을 보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양육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2세들의 심정에 불이 붙는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본부는 신미국에서 ACLC 특별집회에 참석하여 기독교 성직자들과 독생녀 실체성령 참여머님으로부터 하늘 섭리로 본 미국의 사명과 기독교 2천년 역사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독교가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천운을 상속해 주신 뜻깊은 집회였습니다.





세계본부가 새로이 출발하면서, 참어머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깊은 심중을 알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말씀 속에서 4가지 시대인식, 3대 목표, 7대 정책을 뽑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4가지 시대인식은, 실체모심의 시대이자, 본질을 추구하는 시대이며, 효정을 넘어 충절의 시대이자 전도 실적을 보고 드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실체모심, 본질추구, 충절, 전도 실적 이 네 가지는 비전2025 승리를 위한 핵심가치로, 실질적 전도를 통한 실체적 국가복귀, 단계적 접근과 조직의 역할 분담을 통한 신통일한국 안착, 투명성과 효율적 조직을 통한 천일국 완성이라는 3대 목표로 구체화됩니다.

이러한 3대 목표 아래, 세계본부는 세계 순회를 통한 현황 파악과 각 대륙 전략수립, 참부모님 중심한 심정문화 재정립과 교육, 신령과 진리를 통한 전 세계 새창조 운동, 경제 자립과 투명성 확보, 실질적 성장과 전도성과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평가, 전 세계 평화운동 연대를 통한 신통일한국 안착 지원, 미래세대 양성과 인재 데이터뱅크 시스템 구축 등 7대 정책을 가지고 대륙본부와 소통하고, 타 기관과 연대하며 중단 없는 전진을 하여 왔습니다.

7대 정책 중 2가지 실적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부모님을 중심한 하늘부모님성회의 심정문화 재정립 및 교육’의 내용입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시대에 맞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천일국 전통 확립을 위한 교육 강의안을 개발하여 ‘하늘부





모님과 참부모님의 본질, 그리고 축복가정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심정화 교육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세계본부는 선문대학교와 선학UP대학원대학교 신학교수들과 ‘참부모신학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한시가 급하다.”하신 참어머님의 말씀에 공명하여 전체가 밤잠을 설치가며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참어머님께서서는 교재 제목을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로 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정 보완하여,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 식구님들에게 전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 인류에게 참부모님의 진실, 섭리의 진실을 전하여, 하늘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높여 드리는 결과가 얻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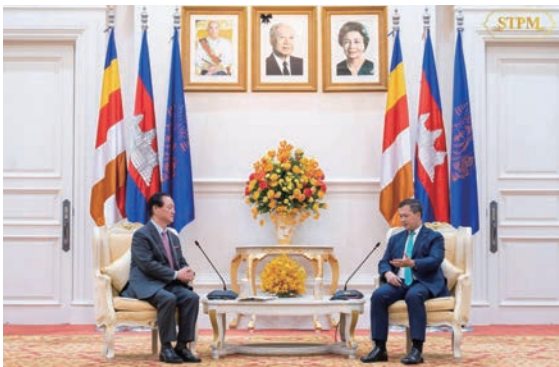
두 번째 ‘미래 인재 양성과 인재 데이터뱅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10월 참어머님께서서는 “2세들이 국가 복귀 세계복귀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2024년 문신출 문신흥 생도를 포함한 선문 UPA 생도들은 각 선교지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본부는 전 세계 대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기 다른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공식적인 청년지도자 양성 노정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본부는 천일국을 이끌어 갈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식구 전체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도록, 세계본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 세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식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문

양창식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은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5일부터 9일까지(양 11. 17~21)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하여, 쿤 사오다리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훈 마넛 총리 등 다양한 캄보디아 정치인들과 잇달아 미팅을 진행했다.

양창식 UPF세계의장은 천일국 11년 천력 10월8일(양 11.20, 현지시각) 캄보디아를 방문해 프놈펜 평화관에서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만남을 가졌다.



가장 먼저 양창식 세계의장은 훈 마넛 총리의 취임에 대한 UPF 창설자 한학자 총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후 금번 공식 방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또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 추구를 염원하는 훈센 총리의 노력과 대처에 칭찬을 전하며, 특별히 캄보디아가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전 세계 국가들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창식 세계의장은 UN과 연대하여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UPF에 대한 훈 마넛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캄보디아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UPF가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훈 마넛 총리는 UPF창설자 한학자 총재의 축하 메시지에 감사와 애정을 표현했으며, 캄보디아 정부 역시 양 기관 발전 및 상호협력을 위해 UPF 전반적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양창식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 쿤 사오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 회동

같은 날(양11.20) 오전 양창식 세계의장은 쿤 사오다리 국회의장을 만나 캄보디아 정부와 UPF의 협력과 소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창식 세계의장은 “오랜 기간 UPF와 캄보디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오며 신뢰를 쌓아온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쿤 사오다리 국회의장은 “캄보디아가 여러 국제포럼(AIPA, IPU, APPE, APF, ASEP)에 참여하여 평화와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중소등급 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캄보디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UPF가 투자자와 여행객 유치, 교육 및 훈련 제공, 공공부문 역량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양창식 세계의장은 “UPF와 캄보디아 정부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이다. UPF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UPF와 캄보디아 정부가 서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더욱더 확대된 관계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전날(양11.19) 양창식 세계의장은 캄보디아 내전 종식을 나타내는 윈윈 메모리얼을 방문했다. 윈윈 메모리얼은 (양) 2018년 12월 31일에 내전 종식 20년을 기념하여 훈센 총리에 의해 준공됐다. 



UPF 아시아태평양권역, 스리랑카 국회와 국회의원 지도자회의 공동주최

UPF 아시아태평양권역·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스리랑카 국회 공동주최 <UPF 아시아태평양권역, 스리랑카 국회와 국회의원 지도자회의>가 “행동하는 책임: 투명성과 굿 거버넌스 육성”이라는 주제로 천일국 11년천력 10월 24일(양 12.6) 스리랑카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현직 국회의원, 정부 대표, UPF 12개국 대표(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스리랑카 대통령(세계평화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의장)과 국회의장의 공동주재로 열린 금번 행사에는 라닐 위크레메싱헤 스리랑카 대통령이 직접 패널로 참석하여 환영사를 전했다.





덴버튼 IAPP 공동의장의 축사에 이어 등단한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주제강연을 통해 원리적 관점에서 정치인이 지켜가야 할 덕목 및 공공 의식, 투명성, 이타주의적 행동과 책임을 역설했다. 특별히 양창식 세계의장은 국경을 넘어 지역적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참여머님의 아시아태평양양유니온(APU, 2019년 나고야 선포) 창설 의의 및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 말미에 양창식 세계의장은 스리랑카 국회와 함께 2024년 5월 UPF가 준비하고 있는 UN 국제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스리랑카는 참부모님께서 UPF 창설 직후인 2005년, 2006년 공식 방문한 곳이며, 당시 대통령궁에서 스리랑카 정부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신 바 있다. 



천주평화사관학교 신탐건(神TOPGUN) 선교활동

1. 천주평화사관학교 소개

천주평화사관학교(Universal Peace Academy)는 참부모님과 하나되어 천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써 지난 2013년 3월에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1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 성화 이후 첫 사업으로 미래 세대의 주축이 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천주평화사관학교 석사과정(시니어UPA)을 설립하셨다. 더불어 지난 2020년에는 선문대를 천일국 국립대학으로 명하시며 신학과를 천주평화사관학교 학부 과정(주니어UPA)으로 새롭게 출발시켜 주셨다.

천주평화사관학교에서는 효정을 기반으로 묵회, 선교, 학문, 교양의 역량을 두루 갖춘 ‘참부모를 닮은 천일국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교육 훈련을 하고 있다. UPA 사관생은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혼독회, 체력 및 제식 훈련, 출정식, 점호, 기도회, 정성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통해 내적 자세를 확립하고, 그 외 다양한 교육 훈련을 통해 각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4년의 학부 과정에 이어 2년간의 인턴십을 마친 사관생도들은 참어머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발령임관식을 통해 발령받고 ‘천일국 청년특사’로 전 세계 각 현장에서 공직 활동을 하게 된다.





2. 신탐건 선교활동

참여머님께서는 3대권을 중심으로 UPA 생도들을 친히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양육해 오셨다. 이제 신출, 신흥 생도를 비롯한 주니어UPA 1기 생도들이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해외선교 인턴쉽에 나아가게 된다.

참여머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독교 국가로 나아가 실체성신 독생녀 참여머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본질과 섭리의 진실을 전하라는 천명을 주시며 주니어UPA 생도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청년선교사들에게 ‘신탐건’ 이는 이름을 하사해 주셨다. 이러한 참여머님의 명을 받은 주니어UPA 1기 생도들과 선교를 결심한 미래세대들은 신탐건의 이름으로 2024년 해외선교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현재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파송을 위한 선교국가 선정 및 준비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는 북미를 비롯한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의 기독교, 영어권 국가로 파송될 예정이다. 이들이 가는 길을 모델 삼아 향후 통일가의 미래세대들도 함께 공적인 축복가정의 전통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3. 참가자 각오

1) 1기 남궁화윤 생도

이제 해외 인턴십을 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오지만 제가 가게 되는 해외 인턴십에 참여머님께서 정성과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인턴십 그리고 공직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참여머님께서 4년간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서 기쁨을 드리고자 했다면 이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참여머님께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아직 천지인참부모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겠습니다. 참여머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효자 효녀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천지인참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 1기 최주현 생도

‘희망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주니어UPA 1기 사관생도 일동은 독생녀 참여머님을 절대 중심에 모신 가운데 지난 4년간 신령과 진리로 천일국 실체화를 위한 교육 및 훈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사관학교 과정은 수많은 내외적 시련과 갈등으로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희의 앞길을 참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참여머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관생도 일동은 지난 4년간 아낌없이 내려주신 참사랑 앞에 효정의 도리를 다하고자 ‘신탄건’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파송될 곳이 어디든



간에 하늘부모님의 참사랑과 원리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독생녀 실체성령'으로 현현하신 평화의 어머니를 만천하에 선포하여 통일가(統一家)에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3) 1기 문신출 생도

저를 비롯한 UPA 생도들은 2년 동안 해외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생도들 각자 걱정들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늘부모님을 위하여, 천지인참부모님을 위하여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인 만큼, 4년간 훈련 받아온 모든 과정의 결실을 꼭 맺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교기간 저희 생도들 한 명 한 명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참여머님께 귀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머님 사랑합니다! 



제5회 남북통일 기원! 천운상속 천심수련

제5회 남북통일 기원! 천운상속 천심수련이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양 12.12~15) HJ천주천보수련원을 비롯한 HJ천원단지에서 용평 및 지역별 행복원리세미나 수료자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새식구 108명과 믿음의 부모 20명이 참석한 천심수련은 용평리조트 교육 수료 이후 참부모님 생애노정과 원리 심화교육, 천보특강, 찬양역사, 천심원 기도회를 통해 가정연합 새식구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첫째 날 개회식은 이준 국장의 사회로 가정연합 소개, 오리엔테이션, 대표기도(오영재 대교회장), 영상시청(남북통일은 우리의 숙명), 천보섭리 특강(문배관 특별순회사), 천보찬양, 천심원 기도회가 진행됐다.

둘째 날은 행복원리(이승일 중앙강사), HJ천원단지 순례(천보원, 아쿠아가든) 등이 마련되었으며, 셋째 날은 참부모님 생애노정(이기식 부협회장), 남북통일기원 옷놀이가 진행됐다.

마지막 넷째 날은 영상 시청(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박보희 회장), 폐회사(송광석 협회장), 특별강의(안호열 대외협력 본부장), 신앙특강(이승일 중앙강사)이 실시됐다.

송광석 협회장은 폐회 말씀을 통해 “지금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 나라의 통일이다. 이 민족이 하나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되지 못하고, 남북이 하나되지 못하는데 그 무엇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국민들을 더 많이 교육하고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다.”라는 참어머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일 중앙강사의 인도로 새식구들은 안착기도문을 통해 참부모님을 중심한 신앙생활과 남북통일운동의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천운상속 천심수련 소감문

서울북부 은평교회 정난호 새식구

3박 4일 동안의 교육은 참으로 영혼도 몸도 다시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 오려고 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됨에 감사하며 이 길을 가게 인도해주신 성환득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선명한학자 참부모님,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파하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니 그 감동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통일도 이루고 세계평화도 이룰 것입니다.

경남 마산교회 김경순 새식구(마산 새마을 부녀회장)

용평수련 참석 이후 양위분 업적에 깊은 감명을 받아 4일간 회사를 휴가 내고 금번 수련에 참석했습니다. 행복원리와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천정궁 순례 등을 마치고 나니 제 주변 지인들 역시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온다면 또다시 수련에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북부권역 종로교회 이영애 새식구

처음에는 이단이라는 벽을 넘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련 참석 이후 가정연합의 취지와 목적을 알게 되었고, 1년간 종로교회 원리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번 수련을 통해 새로운 신앙관과 인생의 도전과제를 느끼며 보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북부권역 종로교회 이우엽 새식구

저는 카톨릭 천주교 성당에서 세례도 받았었고, 개신교에서 장로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짧지 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답답함이 언제나 제 마음 속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3박 4일간 진행된 천심수련은 그간 제 가슴에 멎은 상처가 치유해주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전도 왕으로써 재능기부하고 기도와 실천으로 남북통일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참아버님 참여머님 찬미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경기북부 동두천교회 유금용 새식구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삶을 자세히 알게 되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삶에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늘부모님 뜻과 온전히 하나되어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더욱 실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히 참부모님 삶을 닮은 삶, 뜻을 실천하는 삶, 책임과 소명을 느끼는 삶을 통해 참부모님 뜻을 실천하는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주.

신미국, 뉴저지 전도 전략 모임

신미국 뉴저지 전도 전략 모임이 축복가정 1세·2세 핵심지도자 참석하에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21일(양 12.3) 열렸다.

이날 모인 핵심지도자들은 뉴저지 교회를 위한 향후 과제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전도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대학가 전도전략 실행 방안을 모색한 후, 오늘날 신앙을 갈급하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있어서 가정연합 정책 이행 참여방안 또한 더욱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우선순위 선정으로 대학가 전도활동을 확장 시키기 위해 축복가정 전체와 대학원리연구회(CARP)가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모임 말미에는 뉴저지 교회가 금번 대학가 청년 전도를 통해 가정연합의 긍정적인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아시아태평양, ‘위하는 삶’ 시상식 및 신규 평화대사 위촉식

천주평화연합(UPF) 호주 주관 ‘위하는 삶’ 시상식 및 평화대사 임명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20일(양 12.2) 지역사회 내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우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시상식 및 위촉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기조연설(존 아다메데스 UPF 호주 회장), 시상식, 축하메세지(유타카 UPF 오세아니아 회장, 샌디아 레디 스트라스 필드 협의회 부시장), 평화대사 위촉식(산토시 네우판 UPF 호주 부회장), 축하공연, 기념촬영,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존 아다메데스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서로 위하여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됐다. 이후 진행된 신규 평화대사 위촉식에서는 지역을 대표해 지속적인 평화운동에 적극 앞장 설 신규 회원 10명을 선임하여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편 산토시 네우판 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 평화운동 확산을 위해 앞장서 주신 모든 회원분들과, 향후 평화 세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함께 해 주실 각계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신남미, 브라질 종교지도자 평화대사 위촉식

<종교지도자 평화대사 위촉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13일(양 11. 25) 상파울루 본부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종교지도자 평화대사 위촉식은 국가복귀를 위한 아벨형 지도자를 세우는 데 의의가 있다. 신남미 1지구 브라질 천주평화연합(UPF)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상파울루주 기성교회 소속 성도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은 UPF 창설자인 참부모님 생애노정과 평화 비전 제시에 대해 강조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브라질종교지도자협의회(BCLC)창설에 이어 종교지도자 평화대사 위촉식(10명)이 진행됐다. 특별히 BCLC는 2024년에 세계기독교성직자협의회(WCLC) 평화대사들과의 만남을 추진 계획 중이다. 



신남미, 새식구 1000명 승리 특별예배

새식구 1000명 승리 특별예배가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14일(양 11.26) 브라질 상파울루 본부교회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새식구 특별예배는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을 비롯하여 사사키 코이치 브라질 가정연합 회장 내외, 축복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효정찬양, 가정맹세, 개회사, 개회기도, 천일국가, 말씀(김동우 회장),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6개월간 1000명의 신규회원을 결집하기 위해 김동우 회장을 중심으로 신남미 국가지도자, 천보가정, 축복가정은 한 명 한 명 신규 가입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 기도를 올린 바 있다. 이렇게 모인 1000명의 신규회원은 가입신청서 작성은 물론 통일원리 이수, 브라질 통일문화 수용(술X, 담배X, 자유로운 성관계 X)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위한 비전 실현 활동 및 천보가정 등록을 위한 결심을 다졌다.

이날 참석한 식구들은 “지난 6개월간 참여머님 말씀과 하나되어 천심원 특별정성을 쌓은 결과 기적과도 같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며 금번 새 식구 1000명 승리 특별예배를 통해 천일국 시대에 살아가는 참된 자녀의 입장에서 모두가 신통일 브라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신중미, 도미니카공화국 축복결혼식

도미니카공화국 축복결혼식이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평화의 꿈 실현을 주제로 천일국 11년 천력 10월 7일(양 11. 19) 센트로 프라자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축복 참여자 100쌍을 포함하여 베르나르도 크루스 도미니카공화국 국가 지도자, 레오니다스 벨라르드 카리브해 지구장, 레갈라도 도미니카 UPF 사무총장, 살바도르 카스티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도미니카 부회장, 카를로스 에르난데스·샤니엘라 페트라 도미니카 청년회장, 록산나 크루스 국가 지도자 부부, 페랄타 예수교회 목사, 마르타 라보우르 와 리카르도 페레즈 내외, 소라야 아키노 기독교회당 의장 등 320여 명의 가정연합 회원이 참석했다.

축복결혼식은 개회식, 환영사(레오니다스 벨라르드 카리브해 지구장), 선포기도(오노레 복음주의교회 목사), 인사말(히메네스 목사), 말씀(세자르 레갈라도 UPF 사무총장), 주례사(타카시·고노 테이코 목사 부부),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시간

에바
독일선교사



통일원리와의 만남

1951년, 독일 브레멘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시절 가족과 함께 개신교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십 대에는 삶의 목적과 영적 세계에 대한 질문을 거듭하며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1973년) 저는 한 여성분(민음의 부모)을 통해 통일원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원리는 그간 제가 나름 궁금해 왔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0대 초반, 통일원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 문제를 붙들고 방황하는 보통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1년간 집을 나와 민음의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며 통일원리 및 통일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제 가족은 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전문 납치범을 고용하였지만 종교에 대한 제 의지를 확인한 뒤 자포자기 상태에서 저의 뜻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첫 선교지(태국)

가족들의 만류에도 통일원리와 통일운동을 위한 마음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뮌헨에 있는 통일운동에 합류하기 위해 캄버그 근처 센터인 칼스루에서 선교활동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독일 선교사 파송을 위한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합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최측에 태국 선교에 의사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제 뜻은 어김없이 받아들여졌고, 그해 4월 태국에서의 선교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방콕 공항에서 서투른 영어로 간신히 택시를 잡아타고 렌트해 놓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저를 반갑게 맞이한 집주인의 낯선 언어와 지저분한 환경은 제게 막연한 두려움을 안겼지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청소용품부터 사 와서 주변 정리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당시 태국에서 느낀 매우 더운 기후와 환경과 문화 등으로 인해 제가 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도착 이후 3일간 제 머릿속은 복잡하다 못해 멍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제게 집주인은 독일어가 가능한 베트남 유학생을 소개해 주었고, 방콕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생각지 못한 내용들을 제게 전달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첫 공식활동과 다른 선교사들과의 만남

1974년, 태국 공항에 도착한 저를 제일 먼저 기다린 사람은 선교 파트너인 잭(미국인 선교사)이었습니다. 잭은 제 첫 선교활동에 많은 도움과 격려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잭과 저는 태국 선교활동을 위한 경제활동을 먼저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어학원에서 영어와 독일어를 가르치며 동시에 활동을 위한 태국어 학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라, 태국어 공부하라 정신없는 상황에서 저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방콕 학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학습한 태국이란 나라는 타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선교 및 다양한 단체들의 포교활동을 허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태국 상황은 극우세력에 의한 정부독재가 집단세력에 압력을 정당화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위한 활동은 태국 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어디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태국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아파트에는 타지에서 몰려온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선교사들로 가득 차 생활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저희 선교팀이 또 다른 선교팀과 함께 활동을 하며 상당부분 주축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태국 정부의 눈을 피해 선교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점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같지만 그 기준과 처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지속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해야 할 부분이 나날이 늘어갔지만 몇 달간은 서로가 참으며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정성을 모으며 활동의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다른 선교팀에서 잭에게 선교팀 전체 리더 역할을 요청했고, 당시 상황을 여러모로 고려한 잭은 고민 끝에 그들의 리더로 선교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결론을 갖고 타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태국 선교의 미션을 위해 남아야 했기에 결국 저는 태국에 혼자 남아 활동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참한 제 상황에 통성기도를 올리던 중, 이웃집에서 우연히 제 기도와 선교활동



에 관심을 보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그간 열심히 공부해 온 태국어로 통일원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지나가던 미국인 부부가 제 집을 방문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혼자서도 통일원리를 전파하며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저는 우연한 사고로 엉덩이 골절 수술을 받게 되어 움짱달짝 못 하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3개월간 목발과 한 몸이 된 제게는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엮힌 데 뒤틀린 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까지 처하게 되어 하루 한 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보살핌이었을까요? 저의 상황을 알게 된 집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의 식사를 챙겨주었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제게 집세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밀려있던 제 병원비까지 내어주며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갑작스레 선교 파트너를 타지로 떠나보내고 혼자서 끊임없는 악재로 고통을 겪고 있던 제게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내가 늘 네 옆에 있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경험

주변의 도움으로 저는 차츰 건강도 되찾고, 이전보다 경제적 여건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1976년, 잦을 비롯한 선교팀은 비자 문제 등으로 또다시 추방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다시 모두가 한 공간에서 지내야만 했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저희는 큰 공간을 빌려서 좀 더 조직적으로 원리공부와 선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통일원리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 태국어 실력과 통일원리 실력은 누군가가 모토를 달아놓은 듯 승승장구했습니다. 강의할 때는 전에 알지 못했던 말들이 제 입을 통해 선교사와 게스트에게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깊은 심정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영어와 태국어에 능통한 렉(선교사)이 우리 센터로 이주해 왔습니다. 저희는 그를 중심으로 통일원리를 태국어로 번역하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어로 번역된 통일원리를 가지고 저는 바로 1975년부터 인연 맺어 온 룬폰을 믿음의 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좌파 성향이 강했지만 통일원리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며 많은 시간을 저와 논의했고, 이후 저희



운동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축복결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가정연합의 일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상 1976년은 태국 현대 역사의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1976년 10월 6일 방콕의 탐마삿 대학 대학살 사건은 당시 복잡한 사회 정치적 긴장을 반영하는 잔혹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군부에 항의하는 좌익성향의 학생운동권을 경찰은 물론 군인, 우익단체가 진압하여 무자비하게 탄압 및 학살을 한 사건입니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학생과 시민들 머리 위로 무자비한 기관총 세례가 쏟아져 언제 누가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 전체는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이어가던 중 1978년 저 역시 비자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근로 활동을 목적으로 당시 일화 인사를 팔며 태국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선교사들은 다들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붙들고 통곡하며 매달리는 날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안타까운 사정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아셨던 것일까요? 이전보다 통일운동의 결과가 나날이 성장세를 보이며 기쁜 마음으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 이후 찾아온 사명

태국에서 한창 외롭던 시기 생각지도 못한 이성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제 주변에 남자들은 절 여자로만 대했고, 통일원리의 본질보다는 저 자신에게 관심을 지나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뜻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들에게 강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저를 뜻 앞에 더 단단히 만들어주었습니다.

대부분 여성 선교사의 경우 해외에서 견뎌야 하는 제약이나 상황이 많았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 하며, 열심히 활동한 결과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워라벳(세 번째 믿음의 자녀)은 통일원리를 소개했을 당시 무척 매혹된 듯이 행동했고, 하루가 멀다 저를 찾아와 통일원리, 통일운동, 축복결혼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강의 중에 많은 눈물을 흘렸고, 통일원리를 누구보다도 빨리 습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축복결혼식에 참석하였고, 현재 2명의 자녀와 4명의 손자를 둔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라는 결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동안 선교팀은 자체 제작한 도표나 독일어 통일원리 강의안으로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저의 강의를 접한 태국 식구들은 협동 하에 제 강의안이 업그레이드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978년 5월 책은 공식적으로 국가 지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저 또한 언론 선교를 위한 외국인 특파원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사명은 태국 지역 문화와 소식 등 수많은 내용을 실제 인터뷰하며 주 2회 신문 기사를 기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언론활동

언론 활동 당시 정치적·사회적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은 물론 매춘부나 캄보디아 난민 등의 기사를 다룰 때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였습니다. 삶 밑바닥의 전형적 풍경에 대해 서서히 지쳐갈 무렵 저는 다시금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다시금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보기 위한 작은 홈 처치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 나이에 맞는 교육과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타넷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2년 여간의 정성 끝에 그를 축복결혼까지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12월, 올리버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태국에 오기 전 영국에서 통일원리를 접한 사례가 있었지만 자신의 꿈인 세계여행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태국 여행 중 또 다시 통일운동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만들어 준 인연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모든 일정을 변경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올리버는 통일원리는 물론 통일운동의 일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확신의 찬 태도는 제 믿음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형 러셀이 같은 장소로 방문했고, 그 역시 통일운동은 물론 축복결혼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러셀은 1989년부터 태국 공직자로 임명되어 활동한 바 있습니다.

1980년 2월 참부모님께서 해외 선교사들을 친히 뉴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참부모님을 직접 뵈 수 있었던 엄청난 은사 앞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해외 각지에 흩어져 고충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서나 선교사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인내하며 뜻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고통을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선교사는 지나간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스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가 아닌 둘

참부모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태국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12월 저는 축복을 받은 이후, 1981년 선교 비자를 받아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남편과 함께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는 커플이 되어 선교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미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함께 투입하고 또 투입했습니다.

제가 선교활동을 해왔던 태국은 공식적으로 통일운동이 등록된 상태였지만 실제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국민의 90%이상 차지하는 소승불교를 개종시키는 일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1986년 저와 제 남편은 태국 3대 대도시를 관리하는 센터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게 되어 푸켓으



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건들을 발판 삼아 열심히 활동한 결과 푸켓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결과 좋았습니다.

1987년 저와 남편은 태국 남부 송클라로, 1988년 태국 북부의 치앙마일로 이주하여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저희는 미국 이주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태국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고, 물도 한모금 안 넘어 갈 정도로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태국 선교 발령 이후 저는 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만 여념 해왔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위해 태국 복귀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떠나야 하는 슬픔이 좀처럼 쉽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에게는 선택이 아닌 결정된 답만이 주어졌습니다.

2000년,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태국 내 통일운동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통일공동체에 매우 적대적인 태국 정부의 소수인원이 통일운동을 지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일운동이 태국 왕실과 불교를 비난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렉(선교사) 내외를 감옥에 가렸습니다. 당시 가정연합의 지도자들은 능력 있는 유능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모든 오해를 정리해 주고 그들이 풀려나게끔 도왔습니다.

에필로그

현재 저의 첫 선교파트너인 잭은 영계로 갔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참부모님께서 부여해 주신 고향 땅 태국에서 만난 선교사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연락을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 길을 가는 동지로서 저와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태국 복귀를 위해 기도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묻히고 싶었던 그 곳, 제 2의 고향, 태국을 떠난 그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게 마음 한 구석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태국을 중심으로 제게만 들어 주신 수많은 경험과 인연들은 지금까지도 제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낮선 땅, 낯선 환경 속에 처한 제게 언제 어디서나 ‘내가 늘 네 옆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며 큰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셨던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23 신통일한국 읍면동 지도자 남북통일기원 창원시 구국구세기도회



천지인 참부모님 남양주대교회 방문 남북통일기원 참사랑축제

일시: 천일국11년 천력 10월 7일(2023.11.19)

장소: 남양주대교회